가제 : 쏘다

시나리오 조혜성

S#2 해변가. 낮. (전달-FastFashion)

 텐트 안에서 빼꼼 튀어나오는 주인공의 머리통과 손. 무언가를 애타게 기다리듯 주변을 둘러본다. 배달원이 종이상자를 들고 정돈된 걸음걸이로 들어온다. 치켜올린 턱과 무심하게 내려보는 시선. 양손으로 받쳐올린 종이상자가 흔들린다. 주인공은 배달원을 발견하고 기쁜 듯 텐트 안에서 헐레벌떡 나온다. 옷을 정돈하고 공손한 자세로 손을 모아 배달원을 맞이한다. 배달원은 입을 바쁘게 움직이며 종이상자 속 물건(옷)의 장점에 대해 브리핑한다. 아직 실물을 확인하지 못했는데도, 주인공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고, 당장이라도 받아보고 싶은 것처럼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안달난 듯 몸을 움찔댄다. 억지로 서로를 잡아주는 손이 그 의욕을 붙잡고 있을 뿐이다. 종이상자를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두 사람은 함께 무릎 꿇고 앉는다. 경건한 배달원의 태도와 흥분한 듯 전진되어 있는 주인공. 배달원은 주머니 속에서 커터칼을 꺼내 주인공에게 우아하게 건네준다. 주인공은 종이상자 포장을 해체하고 그 속에 든 옷을 꺼내든다. 커다란 상자에 옷이 차지하는 부피는 미약하다. A는 옷을 가능한 한 높게 들어올려 호기심 있게 물건의 이곳저곳을 살핀다. 배달원이 일어나 자리를 떠나고, 주인공은 옷을 갈아입는다. 윗옷을 벗어 떨어트리고 옷을 목에 통과시켜 입는다. 이전에 입었던 옷은 인디언텐트 안에 고이 집어넣는다. 인디언텐트 밖으로 튀어나온 옷. 파도에 집어삼켜지듯 바다로 빠져나가는 옷. 바다에 빠져 있다. 주인공은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갈아입은 옷자락을 잡아 살펴보면서 좋아한다.